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7. 3.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
담당과장	제경희 과장 (044-203-4910) 김명규 과장 (044-215-4530) 송완호 과장 (044-202-4570) 조경원 과장 (042-481-4537) 선 욱 과장 (02-2100-2860)	담 당 자	김종연 서기관(044-203-4913) 최진광 서기관(044-215-4531) 양민영 사무관(044-202-4573) 곽성원 사무관(042-401-4504) 김명지 사무관(02-2100-2865)

"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" 지난 1년의 성과,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!

- **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확실한 진전**
- **국내 수요-공급기업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확대**
- **수출규제 대응 수세적 전략 ⇨ GVC 재편에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추진**

□ 7.4일로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함

○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온 "**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**"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드림

□ **정부가 1년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크게 3가지***임

* '19.8.5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

❶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

❷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

❸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

1. 그간의 성과

□ 1년이 경과한 현재, **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**를 거두었으며 **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**를 이끌어 냄

가.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

◈ **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**

□ **(3대 품목) 불산액**은 **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**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, **불화수소가스**도 **SK머티리얼즈**가 **5N급 고순도 제품 양산** 성공

* 업계 통용되는 액체(불산액)와 기체(불화수소 가스) 순도기준이 각각 12N급, 5N급으로 다름

○ **EUV레지스트**는 **유럽산**으로 **수입다변화, 美듀폰의 투자 유치**

○ **불화폴리이미드**는 **코오롱인더스트리, SKC가 자체기술 확보,**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, **일부는 해외 수출 중임**

* 국내 휴대폰 기업은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(Ultra Thin Glass) 채택, 일본의존 탈피

□ **(100대 품목)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~3배 확대**하고 **미국,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**하는 한편,

○ **①해외투자유치, ②대규모 설비투자, ③M&A** 등 **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**

* ① **(M社)**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(4.6억불 투자)('19.11월)
(L社) 3대 반도체 장비업체 R&D센터 설립 추진(1.4억불 투자)('19.11월) 등
② **(SKC)**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('19.下), **(효성)**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('20.上) 등
③ **(시노펙스)** LG화학 멤브레인('19.下), **(SK실트론)** 美 듀폰 실리콘카바이드 사업부('20.上) 등

□ **(기업애로지원) 「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」***를 중심으로 **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**(75일→30일, 9개사), **특별연장근로 인가**(1,496명) **금융지원 5.2조원** 등 기업애로 해소를 **원스탑으로 지원**

* 관계부처, 유관기관, 업종별 협회 등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('19.7~)

< 기업애로해소 지원 실적('20.6.26 누적) >

수 급 애 로			기술개발	간접피해	합계
물량 확보	대체처 확보	생산설비 확충			
16건	20건	41건	29건	13건	119건
특별연장근로	8개사 12개 사업장 1,496명		화학 인·허가 Fast-Track		9개사
금융 지원	①금융위 2,609건 50,918억원, ② 중진공 354건 1,000억원				

나.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

◈ 기업 간, 산·학·연·관 간 '연대와 협력'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음

□ **(협력모델)**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**수요·공급기업,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**들이 협력하는 **"수요-공급기업간 협력모델"이 최초로 추진**됨

○ **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*을 발굴·승인 → 정부가 R&D, 금융,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**중임

* 총 참여기관 수: 77개사(연구소 포함), 정부 R&D 지원 규모: 1,014억원(~24년), 정책금융지원 협력모델 5건에 대해 250억원 지원 完, 1,750억원 지원 진행중

○ **대기업 수요**와 기술력을 보유한 **중소기업을 연결**시켜 협력을 통해 **기술개발에서 납품**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**상생모델** 지원

□ **(R&D·기반구축)** **'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**하는 **기술개발, 신뢰성테스트, 양산평가 등을 진행***중임

* '19년 추경 2,732억원, '20년 1.7조원 투입중 → '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도출 전망

○ 또한, 공공연 중심의 「**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**」출범하여('20.5, 9개 연구단)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**소재를 적용한 공정·부품·시스템까지 패키지 개발**하고, **연구기간**(5년) **내 기술이전 추진**

□ **(강소기업)** **국민평가단**(100명)을 구성, **의견 반영**하여 소부장 분야 **유망 중소벤처 55개사**를 **강소기업**으로 선정함('19년.12월)

○ 강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**창출하는 성과**를 향후 **후배기업 기술자문, 지역사회 공헌** 등을 통해 **사회에 환원**키로 **공동 선언***

* 강소기업 100 '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' 개최('20.6.15)

□ **(기술특례상장)**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**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***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**4개 소부장 기업**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**코스닥 시장에 상장**하였음

* 심사기간 단축(45→30일), 1개 평가기관에게 A등급 이상 획득시 상장자격 부여(現 2개 기관) 등

다.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

◈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함

□ **(경쟁력위원회*) 정책 컨트롤타워로 「소부장 경쟁력위원회」를 본격 가동**('19.10~, 4회 개최)하여 소부장 정책 수립, 협력모델 승인, 대책 이행점검* 등 추진중

*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중 65개(87%)를 이행완료(6월말 기준), 연내 100% 이행 예정

** 민간 자율의 '대·중소기업 상생협의회'를 구성('19.10월 출범), 기업 현장과 적극 협조

□ **(소재부품장비 특별법)** '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**대상·기능·범위·방식·체계** 등을 **20년만에 전면개정**하여 4.1일 차질없이 시행함

□ **(특별회계)**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**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('20.1)**하고 전년(8,327억원)대비 2배 이상 증가한 **'20년 2.1조원 규모 예산 운영 중**

○ **상반기에 70% 이상 조기집행**(6월말 기준 76%(1조 5,750억원)) 하였음

<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실적·성과 >

구분	지난 1년간 주요 실적·성과
❶ 100대 품목 공급안정	◇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 1) **고순도 불화수소(불산액(12N급), 불화수소가스(5N급)) 양산 성공** 2) 100대 핵심품목 **해외투자유치 (EUV레지스트, 실리콘웨이퍼, 반도체 장비 등)** 3) 100대 핵심품목 **재고 2~3배 확충, 설비투자, 수입다변화, M&A** 4) 환경 **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**(75→30일, 9개사), **특별연장근로 인가**(1,496명)
❷ 협력 생태계 조성	◇ 기업 간, 산·학·연·관 간 '연대와 협력'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1) **수요-공급기업간 협력모델 17건 발굴 및 추진** 2) **공급기업 주관-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**, 실증·양산테스트 도입 3) **정부 R&D 방식 전면 개편**(복수형, 경쟁형, 정책지정 도입) 4) 공공연구소의 對기업 밀착 지원 기구 **'융합혁신지원단' 출범**('20.4) 5) **소부장 기업 기술특례상장 4건** 6) 대규모 **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** 및 운용(금융위 4,000억원+중기부 1,100억원)
❸ 강력한 추진체제	◇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완비 1) **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·시행**('20.4) 2) **소부장 특별회계 신설**('20년 2.1조원) 3)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 - **'소부장 경쟁력위원회'**('19.10, 위원장: 부총리) 4) 민관합동 기업애로지원 전담기관 운영 - **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**('19.7)

라. 우리 국민과 기업,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

□ 이번 계기로 **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**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

○ 그간 '시도조차 어려웠던 벽'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→ **'해보니 되더라'라는 경험과 자신감**

○ 기업들도 **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**

○ 이러한 **국민-기업-정부의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**이 **K-방역에도 이어져 全세계가 주목하는 모델**이 되었다고 평가

⇨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**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**되었고, 대외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게 **변화의 움직임이 멈출 수 없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 중요**한 의미가 있음

2. 20년 추진상황

□ **(관리품목확장)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**를 위해 **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***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** 중

○ **재고상황 등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 국가,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**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·관리**

○ **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***, **신고센터 운영** 및 대체처 발굴, 금융지원, 생산관련 기업 애로해소, **범정부 협조사항 처리**** 등 지원 강화

* 무역협회(수출 애로)·코트라(현지 진출기업 애로) 등 관련 기관과 협업

** 多부처 관련 애로사항은 정부 회의체에 안건화해서 조속 해결 추진

□ **(기술개발)**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, Test-bed 대폭 확충* 중이며 **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확보**

* 15개 공공연구소에 Test-bed를 대폭 확충('19~'20년, 1,500억원, 245종)

○ 또한 **32개 공공연구기관**으로 구성된 **「융합혁신지원단」**('19.4월 출범)을 통해 **기술자문, 공동R&D, 인력파견** 등 **기업 밀착지원**

○ **기술거래 플랫폼**을 통해 **대학·연구원**이 보유한 소부장 **공공기술**을 **중소기업과 매칭, 상용화를 지원**

□ **(협력 생태계) 수요-공급기업간, 대-중소 기업간 협력이 산업 內에 확산**될 수 있도록 **협력모델**을 금년에 **20개+α개 이상 지속 발굴**하여 패키지 지원

○ 또한, **소부장 기업 집적화**를 통해 **공급망 안정성을 강화**하고, **기술자립 허브(Hub)를 구축**하기 위해, **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·육성**해 나가겠음('20.下)

□ **(기업 육성)** 기업 성장 단계별 **스타트업→강소기업→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**하여 **R&D, 세제, 정책자금, 컨설팅 등을 맞춤형**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

- **(스타트업 100)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발굴·지원** / 후보기업 60개 선정(7월) → 대·중견기업 매칭하여 교육·멘토링 제공(~9월) → **'20.10월 최종 20개팀 선정**
- **(강소기업 100) 유망 소부장 중소기업**을 선정하여 R&D, 벤처투자, 사업화자금, 연구인력 등 지원 / **'20.8월 45개사 추가 선정**
- **(특화선도기업 100) 100大 핵심전략기술 분야**의 잠재력을 갖춘 기업(대·중견·중소)을 선정하여 **대규모 R&D(최대 기업당 50억원/년) 등 집중 지원 / '20.下 20개내외 선정**

3. 향후 계획 : 「소부장 2.0전략」 수립(7월)

□ **(배경)** 코로나19,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**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**되는 상황으로

○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**자국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**하는 등 **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 뚜렷**함

□ **(향후계획)** 현재의 “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’이 **수출규제 대응차원**이었다면, 이제는 **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**할 필요

○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**공세적 소부장 정책(소부장2.0)으로 전환하고,**

○ ‘포스트 코로나 시대’ **국내외 첨단산업**이 모두 모일 수 있는 **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**

⇨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**7월중 「소부장 2.0 전략」 발표 예정**

□ 성윤모 장관은 **지난 1년**에 대해, “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, **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**중이며, **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”**였다고 밝히며,

○ “정부는 **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**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**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”**고 언급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김종연 서기관(☎ 044-203-49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